

조직재정비 선포... “AI사업 등 집중, 기업가치 성장시킬 것”

카카오 컨퍼런스콜

카톡 오픈채팅 결합 AI봇 출시
카카오택시 수수료 문제 개선
카톡로컬, 연내 카카오 맵 결합
“강화된 중장기 주주환원 도입”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가운데 컨퍼런스콜에서는 주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조직 재정비를 선포했다. 최근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데다 외형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떨어졌기 때문. 이에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사업 등에 집중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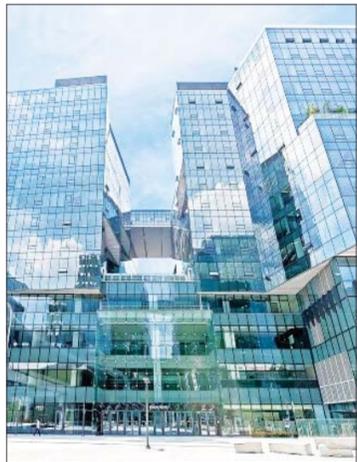
홍은택 대표는 9일 열린 2023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최근 카카오 주가 상황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성장시키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올 3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악화됐다. 매출은 2조160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3% 증가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 14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견조한 성장에 외형은 확장했으나 AI(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일회성 인건비 증가로 영업비용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사회적 책임 통합 “조직 재정비·택시 수수료 개선”

최근 카카오는 SM 시세조정 의혹과 카카오택시 독과점 문제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그룹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흔들림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은택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부정적인 뉴스들로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카카오 판교아지트. /카카오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어 느덧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됐다. 성장과 함께 그만큼 커지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회사 경영의 틀을 다시 고민해 조직적인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택시 수수료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로부터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고 있고, 그게 한 90% 된다”라며 “가맹택시에서 받는 수수료가 표면적으로는 20%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기사가 부담하는 수수료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빌리티의 택시 수수료가 복잡한 체계가 체계로 돼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 13일 택시 4단체, 가맹택시연합회 5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하고 간담회를 시작했다”라며 “수수료 체계와 가맹 구조 여러 가지를 원점에서 놓고 이제 토론과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성 개선 집중 “주주환원 및 AI·로컬 서비스 강화”

카카오는 또 신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인공지능(AI) 콘텐츠봇을 결합한다. 홍 대

표는 “빠른 시일 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결합된 AI 콘텐츠봇을 출시, 검증의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며 “AI봇이 큐레이션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소비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마이크로 버티컬 AI로 정의하고 이용자에게 유용한지, 추가적인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비즈에서는 로컬 서비스를 강화해 커머스 사업에서 본격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요기요와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톡 비즈니스 솔루션을 강화했는데, 요기요를 이용하는 30만 중소형 로컬 파트너들을 카카오 광고 생태계로 편입시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홍 대표는 “3분기 카카오톡에는 친구 탭의 동네 소식과 오픈 채팅의 로컬 탭이 출시되면서 이용자와 주변 가게 사장이 만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났다”며 “연내 이 서비스들은 카카오 맵이라는 로컬 서비스와 강결합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서비스간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비즈니스 기회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카카오는 주주환원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카카오는 매년 별도 잉여 현금흐름(FCF) 5%를 현금으로 배당했고, 지난 2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4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발행 주식 수의 1.4%인 4224억원 규모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 올해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 계획된 주주 환원 범위의 최상단인 별도 FCF의 30% 수준 주주 환원을 검토한다. 내년에는 강화된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최근 카카오 주가 상황에 대해서 경영진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성장시키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대한항공, 고마쓰·아오모리 정기편 운항

日 노선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대한항공 보잉737-8.

대한항공이 일본 고마쓰와 아오모리 정기편 운항을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복항으로 대한항공은 일본 노선을 모두 되살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8일부터 인천~고마쓰 노선 운항에 이어 내년 1월 20일부터 인천~아오모리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인천~고마쓰, 인천~아오모리 노선은 각각 화·목·토 주3회 운항한다.

고마쓰 공항은 일본에서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히는 이시카와현에 위치한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며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으로 유명

해 스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아오모리는 관광객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일본 소도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시라카미 산지와 산리쿠 후코 국립공원에서 대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넥슨, 신임 대표이사에 이정현 대표 내정

내년 3월 공식 선임 예정



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 넥슨의 글로벌 운영 및 개발 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신작 개발과 기술적인 혁신에 대한 넥슨의 헌신은 넥슨이 세계를 무대도 한 번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회사가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성장을 위한 궤도에 오른 시점에 글로벌 대표이사라는 자리를 넘겨받게 되었는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글로벌 타이틀들의 안정적인 운영과 글로벌 성공작이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작 개발에 대한 투자로 넥슨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넥슨은 9일 자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이정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2003년 넥슨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여 년간 근무해 온 넥슨 베테랑으로, 2014년 사업본부 본부장, 2015년 사업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로 선임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이정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취임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넥슨코리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CAGR) 19%를 달성하고,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메이플스토리 M’, ‘블루 아카이브’, ‘데이브 더 다이머’ 등 다수의 신작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는 등 안정적인 리더십을 선보였다.

이정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넥슨을 다음 세대로 이끌어갈 역할을 맡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넥슨의 강력한 가상 세계는 전례 없

넥슨 신임 대표이사는 내년 3월 중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식 선임되며, 이정현 대표의 뒤를 이을 넥슨코리아 신임 대표이사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현 오웬 마호니 넥슨 대표이사는 이후 넥슨 이사회에 남아 고문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SKT, 저전력·고효율 서버로 5G망 고도화

에릭슨엘지·델·AMD와 업무협약
전력 소비 최대 30% 수준으로 절감
서버 공급 기간 확대 등 구축 예정



SK텔레콤은 ‘5G 코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체결한 후 고상봉 텔 테크놀로지스 telco 비즈니스그룹 CE(전무), 이종훈 SKT 인프라 엔지니어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T

SK텔레콤은 에릭슨엘지, 델 테크놀로지스, AMD와 함께 ‘5G 코어(교환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SKT 등 4사는 5G 코어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델 테크놀로지스의 신규 서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5G 코어의 전력 사용량을 최대 30% 수준 절감 ▲안정적 네트워크 운용을 위한 서버 공급 기간 확대 ▲클라우드 기술 기반 네트워크 운용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SKT는 저전력·고효율의 ‘델 파워엣지 R7615 서버’를 도입한다. 해당 서버 도입은 AMD 4세대 에픽 프로

세서 기반의 x86 서버를 5G 네트워크에 적합한 최초 사례다. 에릭슨엘지는 델 파워엣지 서버에 대한 5G 코어 장비 조기 도입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다.

텔 테크놀로지스와 AMD는 델 파워엣지 서버와 통신 소프트웨어간 개발 호환성을 지원하고, 서버에 대한 통신 장비 적합도 기준인 네트워크 장비 구축 시스템(NEBS) 표준 인증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종훈 SKT 인프라 엔지니어링 담당(부사장)은 “4사간 글로벌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사 네트워크 시스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의 상호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네오위즈, 3분기 영업이익 202억 달성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

네오위즈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2023년 3분기 실적은 9일 발표했다.

네오위즈의 3분기 매출은 1175억원, 영업이익은 20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286%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1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성장했다. 신작 ‘P의 거짓’이 매출을 견인했다는 평이다.

PC/콘솔 게임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548억원이다. 이미 10월에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한 ‘P의 거짓’이 매출을 견인했다. P의 거짓 판매 비중은 콘솔 및 스팀 디지털 다운로드가 65%, 하드 패키지가 35%를 차지한다. 북미, 유럽, 일본 등 해외 판매량이 90% 이상 집중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이 두드러지는 대목으로, ‘P의 거짓’의 글로벌 흥행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최빛나 기자